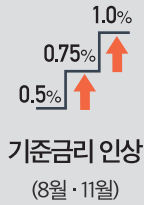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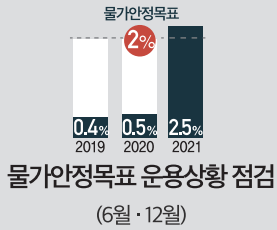

II

업무 현황

1. 중기전략	27
2. 통화신용정책	28
3. 금융안정	36
4. 발권	45
5. 지급결제	50
6. 외환 및 국제협력	56
7. 조사통계	66
8. 국고 및 증권	74
9. 대외 커뮤니케이션	79

2021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 수행



금융안정 책무 수행 및 장기 정책 이슈 대비

금융안정 상황 점검 강화
금융안정점검회의 개최
금융안정보고서 발간

외환시장 안정
미 연준과 FIMA Repo Facility 이용 합의
한·미 통화스왑(600억 달러)
연장(6월) 및 종료(12월)

비상대응체제 가동
미 연준 통화정책정상화 추진,
중국 헝다그룹 채무불이행 사태 등에
대비하여 통화금융대책반회의 등 개최

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와 한국은행의 대응방향」 수립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연구 강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모의실험 진행, 글로벌 논의 동향
및 법적 이슈 조사 등

조사연구 및 대내외 교류협력 강화

우리 경제의 주요 현안 분석
코로나19 확산의 영향 및 위기 이후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조사연구 수행

대국민 비대면 소통 활성화
소셜미디어 활성화
온라인 화폐 박물관 개설

**BIS 이사국 활동 등
글로벌 정책공조 논의 적극 참여**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주관 등

5. 지급결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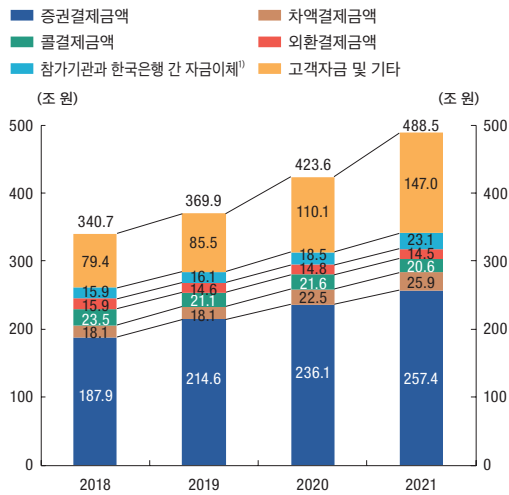
한국은행은 금융기관 간 자금결제시스템인 한은금융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원활한 자금결제를 위해서 일중 일시적으로 결제자금이 부족한 금융기관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급결제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급결제제도를 감시⁸⁷⁾ 및 개선하고 있다. 아울러 지급결제 분야에서 국제기구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가. 한은금융망 운영

원화자금 결제금액 증가세 지속

2021년 중 한은금융망의 원화자금 결제금액은 일평균 488.5조 원으로 2020년에 비해 15.3% 증가하였다. 결제자금 종류별로는 증권자금 결제금액이 기관간 RP 등을 중심으로 전년에 이어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차액자금 결제금액은 인터넷뱅킹 등 금융공동망을 중심으로 전년에 비해 큰 폭 증가하였다. 콜거래자금은 2020년 실시된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일시적 콜거래 한도 확대 조치⁸⁸⁾ 종료 등으로 콜거래 확대 효과가 사라지면서 전년대비 감소로 전환하였다.

그림 II - 19. 한은금융망 결제금액 (일평균)



주: 1) 국공채 등 거래, 국고금 수급, 한국은행 대출
자료: 한국은행

일중 일시결제부족자금 지원

한국은행은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의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따른 결제지연이 한은금융망 전반의 결제리스크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참가기관에 일중 일시결제부족자금을 공급하였다. 2021년 일시결제부족자금 공급 규모는 일평균 3조 4,921억 원으로 2020년보다 0.2% 증가하였다. 세부적으로, 일중당좌대출⁸⁹⁾ 지원금액은 6,332억 원으로 5.0% 증가하였으며, 일중RP⁹⁰⁾ 지원금액은 2조 8,589억 원으로 0.8% 감소하였다.

87)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니터링 및 정기·수시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시스템의 개선을 유도하는 중앙은행의 책무를 의미한다.

88) 2020년 3월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단기자금시장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증권사의 콜차입 한도를 자기자본의 15%에서 30%로 상향조정한 후, 5월 25%, 6월 20%, 8월 15%로 재조정하였다. 자산운용사의 콜론 한도 역시 2020년 3월에 집합투자자산의 2%에서 4%로 확대한 후 5월 3.5%, 6월 3%, 8월 2%로 재조정하였다.

89) 은행들의 일시결제부족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이 당일 상황을 조건으로 제공하는 대출이다.

90) 한은금융망을 통해 처리되는 참가 금융기관 간 자금결제를 조기화하고 마감시간대 결제집중을 완화하기 위하여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당일 상황을 조건으로 RP방식을 이용한 일시결제부족자금 지원제도이다.

표 II - 13. 일중 일시결제부족자금 지원규모 (일평균)

(십억 원, %)

	2019	2020	2021	증감률 ²⁾
일중당좌대출 ¹⁾	432.1	603.0	633.2	5.0
일중RP	2,618.1	2,883.2	2,858.9	-0.8
계	3,050.2	3,486.2	3,492.1	0.2

주: 1) 일중당좌대출 이용금액에서 당좌예금 잔액을 차감한 순일중당좌대출 기준

2) 2020년 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나. 감시 및 리스크 관리

금융시장인프라에 대한 평가

한국은행은 「금융시장인프라⁹¹⁾에 관한 원칙(PFMI, 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⁹²⁾」 등 지급결제분야의 국제기준⁹³⁾을 평가기준으로 채택하고 중요 지급결제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미비점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2021년 중에는 한은금융망과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장내증권 및 장내·외 파생상품 중앙거래당사자(CCP)에 대해 각각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결과 한은금융망은 PFMI를 대부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거래소가 운영하고 있는 지급결제시스템도 PFMI를 대부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손실복구 대응체계, 증거금 관리체계, 운영리스크 및 사이버복원력 관리 등 일부 업무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결제부문 공동검사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의 지급결제 관련 업무 수행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3개 국내은행과 1개 금융투자회사⁹⁴⁾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공동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 결과 일중 유동성 관리, 자금이체업무 등 지급결제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시스템 장애 발생 시 한국은행 앞 보고 기준 보완 등 IT 운영리스크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조기경보지표, 스트레스 테스트 등 유동성 위기 대응체계를 일부 보완하도록 권고하였다.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의 안정적 운영

한국은행은 2020년 초 코로나19 확산으로 금융시장의 유동성 상황 악화에 대응하여 2020년 4월 차액결제 참가은행의 담보증권제공 비율을 한시적으로 70%에서 50%로 인하⁹⁵⁾하였다. 동 조치로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납입해야 하는 담보증권 규모가 감소하였다.

이러한 한시적 담보비율 인하 조치가 2022년

91) 경제주체들의 일상적인 지급이나 금융상품 거래를 청산, 결제 또는 기록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지급결제시스템을 말하며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자금결제시스템, 중앙거래당사자(CCP), 중앙예탁기관(CSD), 증권결제시스템 및 거래정보저장소(TR)로 구성된다.

9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외파생상품시장의 인프라 확충과 금융시장인프라의 운영에 관한 국제기준 정비 필요성 등이 주요 과제로 제기됨에 따라 BIS 지급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와 공동으로 2012년 4월에 제정·발표한 지급결제분야의 국제기준이다.

93) CPMI-IOSCO는 PFMI 제정 이후의 지급결제 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여 「FMI 사이버복원력 지침(2016년 6월)», 「FMI 손실복구 지침(2017년 7월)», 「CCP 복원력 추가지침(2017년 7월)», 등 국제기준을 추가 제정하였다.

94) 2021년 중 한국은행은 연간 3회 정도 실시하던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공동검사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1회 실시하는 대신 이들 회사의 결제리스크 관리 실태 등에 대한 비대면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였다.

95)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에서는 신용리스크를 완전히(100%)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의 담보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1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한국은행은 2022년 2월 1일부터 동 비율을 다시 70%로 상향하였고 동 비율을 2025년 2월 100%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표 II-14.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 비율 인상 일정

(%)

16년 8월	19년 8월	20년 4월	22년 2월	23년 2월	24년 2월	25년 2월
50	70	50	70	80	90	100

자료: 한국은행

아울러 한국은행은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Liquidity Coverage Ratio)⁹⁶⁾ 산정 시점의 담보납입금액에서 순이체한도 소진금액을 뺀 금액만큼을 LCR 고유동성자산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금융감독원과 협의하였다. 금융감독원은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하여 「은행업 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였다⁹⁷⁾. 이로써 한국은행의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 비율 인상에 따른 금융기관의 담보 조달 부담이 크게 경감⁹⁸⁾되었다.

다. 지급결제제도 개선

CBDC 관련 연구 강화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도입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기술적·제도적 연구를 강화하였다.

우선 기술적 기반 확보 노력의 일환으로 CBDC 관련 세부 업무처리 절차 마련, 시스템 구축 요건 정의 등을 위한 외부 컨설팅을 실시(2020년 11월~2021년 3월)하였다. 이후 동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8월부터 CBDC 모의실험 연구를 2단계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1단계 모의실험 연구(2021년 8~12월)에서는 클라우드에 가상의 실험환경을 조성한 후 CBDC의 제조, 발행, 유통, 환수, 폐기와 같은 기본기능을 구현하였다. 2단계 모의실험 연구(2022년 1~6월)에서는 오프라인 결제⁹⁹⁾, 디지털자산 거래, 국가간 송금 등 확장기능을 구현하고,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등 새로운 IT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점검할 예정이다¹⁰⁰⁾.

다음으로 한국은행은 CBDC 도입 시 예상되는 다양한 제도적 이슈들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였다. 우선 CBDC 도입과 관련한 설계 및 운영방식, 예상 파급효과 등의 이슈에 대한 글로벌 논의 동향을 면밀히 분석¹⁰¹⁾하는 동시에, 학

96) 순현금유출액 대비 고유동성자산 비율로 은행들이 30일 동안의 급격한 유동성 유출에 대비하여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다.

97) 금융감독원이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2022년 2월 1일 시행)하여 은행이 LCR 산정 시, 한국은행에 제공한 차액결제 이행용 담보증권 중 미사용분을 고유동성자산에 포함할 수 있도록 업무보고서를 수정하였다.

98) 2021년 11월 기준 LCR 고유동성자산 인정금액은 26.4조 원으로, 국내은행의 LCR이 5.8%p 개선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99) 송금인과 수취인의 전산기기(모바일기기, IC카드 등)가 모두 인터넷 통신망에 연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CBDC를 이용하여 송금 및 대금결제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의미한다.

100)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보도자료 「CBDC 모의실험 연구사업 1단계 결과 및 향후 계획(2022년 1월)」을 참조하기 바란다.

101) 한국은행은 금융결제국 내 디지털화폐동향분석반을 신설(2021년 7월)하는 등 CBDC 연구 강화를 위한 전담 조직 및 인원을 지속 확충해 나가는 한편, CBDC 관련 국제적 논의를 주요 이슈별로 정리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주요 이슈별 글로벌 논의 동향(2022년 1월)」을 발간하였다.

계 등과 CBDC 도입이 통화정책, 금융안정 등 한국은행의 주요 책무 및 역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강화하였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법률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한국은행법 등의 개정 방향 및 범위에 대해 연구¹⁰²⁾하는 한편, 기술자문단 운영을 통해 분산원장의 성능 확장과 같은 기술적 이슈에 대한 점검도 병행하였다. 이 외에도 그간 CBDC 도입에 높은 관심을 보여 온 학계, 금융권 및 IT기업 등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노력¹⁰³⁾하였으며, 국제기구, 외국 중앙은행과의 정보교류 및 협력을 지속하였다.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CBDC 도입 가능성에 대비해 향후 CBDC 도입 여건이 성숙되는 시점에 차질없이 발행에 나설 수 있도록 도입 관련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ATM 활용방식 개선을 통한 금융포용 확대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¹⁰⁴⁾는 금융권과 공동으로 소비자가 현금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금 접근 인프라인 ATM의 활용방식 개선을 추진 중이다.

2021년 11월 금융권의 ATM 설치·운영 관련 세부 정보를 통합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에게 ATM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모바일 앱 형식의 금융맵 서비스¹⁰⁵⁾를 개시하였다. 한편 금융맵과 아울러 ATM

공급자의 운영전략 수립 및 정책대안 마련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분석용 웹을 개발하였다. 이번 금융맵 서비스 개시로 소비자의 ATM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융기관 분석용 웹은 금융권의 효율적인 ATM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분산ID 기반 신원증명 서비스 표준 제정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2021년 12월 「금융회사 분산ID 서비스 운용 및 공유체계 표준」을 제정하였다. 분산ID(DID, Decentralized ID)는 본인을 증명하기 위한 신원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등)를 스마트폰 앱과 같은 형태의 정보지갑에 보관하고 있다가 본인증명이 필요한 경우 정보 주체가 대상기관이 요구하는 정보만 직접 선택해서 제시할 수 있는 분산원장기술 기반 디지털 신원증명체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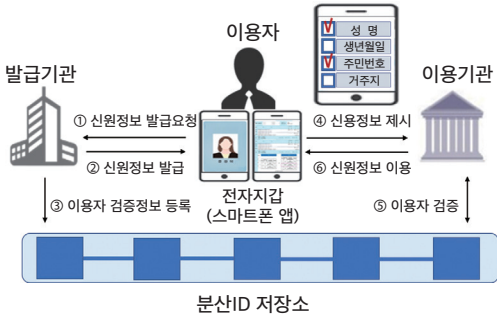
102) 한국은행은 외부연구용역 결과를 정리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법적 이슈 및 법령 제·개정 방향(2021년 1월)」을 발간하였다.

103)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주요 이슈 및 중앙은행의 과제」를 주제로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2021년 11월)」(<https://youtu.be/qgfMOuyEt0k>)를, 금융기관, IT기업 등을 대상으로 「CBDC 추진 현황 설명회(2021년 11월)」를 개최하였다.

104) 1984년 9월 '금융전산위원회(의장: 한국은행 총재)'로 시작되었으며, 그동안 CD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등 주요 금융공동망 구축을 주도하였고 2009년 11월 현재의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의장: 한국은행 부총재)'로 개편되었다. 2021년말 현재 한국은행, 금융기관, 유관기관 등 총 32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산하에 금융정보화 공동추진사업의 선정, 금융표준화 등의 사전 심의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두고 있다.

105) 금융권에서 제공 중인 '어카운트인포 앱', '모바일현금카드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그림 II- 20. 분산ID 서비스 개요



자료: 한국은행

동 표준은 금융권 분산ID 서비스 구축시에 각 금융회사가 참조할 서비스 모델, 기능요건, 신원정보 발급·제출 절차 등을 정의하였다. 금번 표준 제정을 통해 금융권 분산ID 서비스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한편, 금융권 분산ID 서비스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권 데이터 원격지 관리 가이드라인 제정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2021년 12월 「금융권 데이터 원격지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 이는 광대역 재해로부터 중요 금융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금융기관의 금융데이터 소산¹⁰⁶⁾ 업무에 대한 지침이다. 동 가이드라인은 중요 금융데이터의 원격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①소산정책, ②소산정보의 단계별 관리, ③소산시설의 보안 및 운영 등으로 구분하여 기술하고 있다. 또한 지진, 원자

력 사고, 테러와 같은 위험요소로 인해 전산센터와 소산시설이 동시에 파괴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소산시설의 원격지 거리기준(100km 이상)을 정하였으며, 정보관리기준 및 건물방호 요건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라. 지급결제 관련 국제협력

한국은행은 지급결제 관련 국제기준 제정기구인 국제결제은행(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의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위원회(CPMI, Committee on Payments and Market Infrastructures) 회원으로서 글로벌 주요 지급결제 현안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였다. 특히 국가간 지급서비스(cross-border payments)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CPMI 실무 작업에 참가하며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수립하였다.

또한 주요국의 실시간총액결제(RTGS, Real Time Gross Settlement) 방식 신속자금이체시스템 도입이 확산됨에 따라 국가 간 신속자금이체시스템 연계도 점진적으로 RTGS 방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가 간 지급시스템 연계에 대비하고 신용리스크 축소 등 결제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RTGS 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 구축을 검토중이다.

한편 CPMI-IOSCO 회의 참가를 통해 금융시장인프라(FMI)에 대한 감시·규제 논의와 지급수단으로 활용가능성이 큰 스테이블코인(stablecoin)¹⁰⁷⁾에 대한 감시·규제 논의에 적극

106) 소산(疎散, Dispersion)이란 데이터의 복원력 향상을 위해 특정 지역에 집중된 데이터를 분산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데이터의 목표복구시점(Recovery Point Objective)에 따라 소산 주기(일, 주, 월 등)를 결정하고, 해당 주기에 맞추어 사본 데이터를 원격지에 분리 보관한다.

107) 가격 변동성이 높은 비트코인 류의 암호자산과는 달리 그 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해 통화, 상품 등의 자산에 기초하거나 알고리즘에 의해 가격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발행된다. 페이스북이 주축이 된 리브라 협회가 여러 국가에 걸쳐 폭넓게 사용될 수 있는 리브라 발행계획을 2019년 6월 발표하면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바 있다.

참여하였다. CPMI-IOSCO는 2021년 10월 스테이블코인 시스템(stablecoin arrangement)을 금융시장인프라로 간주하여 지급결제 관련 국제기준(PFMI)을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한국은행은 CPMI 회원으로서 동 보고서 작성 논의에 참여하였다.

앞으로도 지급결제 관련 국제논의에 참여하면서 지급결제시스템 감시에 대한 국제기준 논의내용을 적시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QR BOX



QR 1

CBDC 모의실험 연구사업
1단계 결과 및 향후 계획



QR 2

CBDC 주요 이슈별 글로벌
논의 동향



QR 3

CBDC 관련 법적 이슈 및
법령 제개정 방향



QR 4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